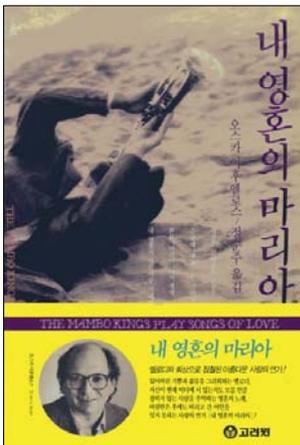




이번 신간소개에서는 국내에 번역된 ‘라티노 문학’을 모았다. ‘라티노 문학’이란, 엄밀하게 정의하면, 미국에서 출생하고 교육을 받은 이민 2~3세대들이 영어로 쓴 문학작품을 일컫는다. 이런 점에서 라티노 문학은, 이민 1세대가 스페인어로 쓴 ‘히스패닉 문학’이나 재미 멕시코인의 ‘치카노 문학’과 구별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라틴아메리카 이주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작품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미국 거주 라틴아메리카계의 작품을 ‘라티노 문학’으로 총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서도 이런 용례를 따르기로 한다. 번역서에서 저자명을 스페인어식으로 옮긴 경우도 있고, 영어식으로 옮긴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라티노 문학의 특성인 문화적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 ■ 내 영혼의 마리아



원제: The Mambo Kings Play Songs of Love (1989)

오스카 이후엘로스 (지은이), 정순주 (옮긴이)

출판사: 고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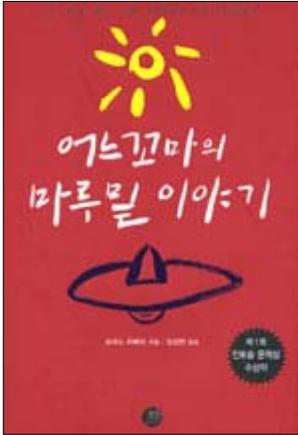
출간일: 1993년

ISBN(10): 8912111566

반양장본 | 500쪽 | 220\*150mm

오스카르 이후엘로스(Oscar Hijuelos)의 이 작품은 라티노 문학의 걸작으로, 영화 <맘보 킹>의 원작이기도 하다. 195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쿠바 음악가 세사르 카스티요와 네스토르 카스티요 형제의 삶을 다뤘다. □

## ■ 어느 꼬마의 마루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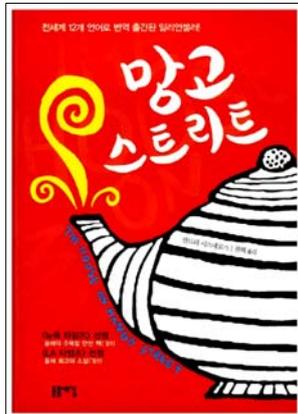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알라딘

원제: Y no se lo tragó la tierra (1977)  
 토마스 리베라 (지은이), 이익태 (그림), 임성현 (옮긴이)  
 출판사: 정음  
 출간일: 2005-06-10  
 ISBN(13): 9788990164353  
 양장본 | 168쪽 | 201\*140mm

치카노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시인 토마스 리베라(Tomas Rivera)의 성장소설이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치카노들 대부분이 겪었던 이민 초기의 일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 ■ 망고 스트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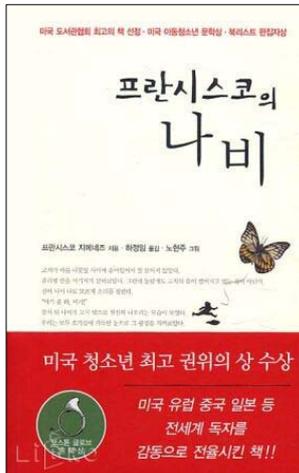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알라딘

원제 The House on Mango Street (1984)  
 산드라 시스네로스 (지은이), 권혁 (옮긴이)  
 출판사: 돌출새김  
 출간일: 2008-07-12  
 ISBN(13): 9788961670180  
 양장본 | 208쪽 | 188\*128mm (B6)

1954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산드라 시스네로스(Sandra Cisneros)의 첫 작품이자 출세작이다. 가난한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망고 스트리트, 그곳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성장해가는 소녀 에스페란사(‘희망’이라는 뜻)의 이야기이며, 소녀의 일기장처럼 짤막하면서도 주관적인 문체가 특징이다.□

## ■ 프란시스코의 나비



원제: The Circuit: Stories from the Life of a Migrant Child (1997)

프란시스코 지메네즈 (지은이), 노현주(그림), 하정임 (옮긴이)

출판사: 다룬

출간일: 2004-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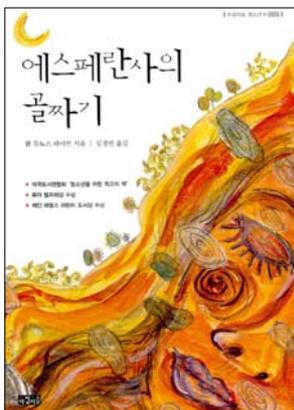
ISBN(13): 9788995574706

양장본| 221쪽| 193\*123mm

이미지 출처: 리브로

어렸을 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프란시스코 히메네스(Francisco Jimenez)의 자전적 성장 소설. 온갖 고생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는 가족의 모습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 에스페란사의 골짜기



원제: Esperanza Rising (2000)

팜 뮤노스 라이언 (지은이), 임경민 (옮긴이)

출판사: 아침이슬

출간일: 2006-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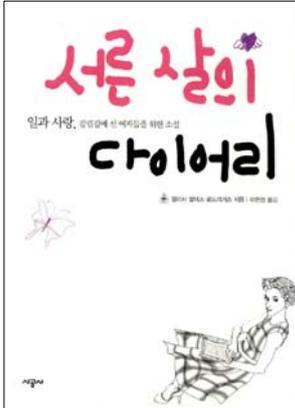
ISBN(13): 9788988996591

반양장본| 277쪽| 210\*149mm

이미지 출처: 알라딘

멕시코 대농장 지주의 딸로 동화 속의 공주처럼 살던 13살 소녀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1929년의 경제 대공황기를 살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멕시코 이민자들의 본국 추방이라는 역사적·사회적 질곡을 배경으로 진정한 자의식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성장소설이다.□

## ■ 서른 살의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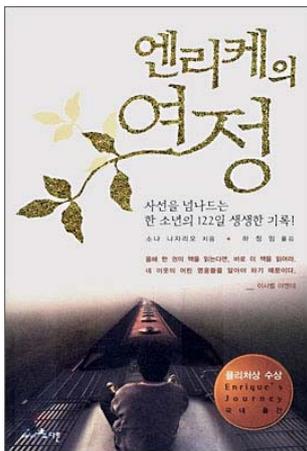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알라딘

원제: The Dirty Girls Social Club (2003)  
 알리사 발데스 로드리게즈 (지은이), 이현정 (옮긴이)  
 출판사: 시공사  
 출간일: 2005-06-28  
 ISBN(13): 9788952743701  
 반양장본| 492쪽| 223\*152mm (A5신)

발데스 로드리게즈(Alisa Valdes-Rodriguez)는 미국 뉴멕시코 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아버지는 1960년 쿠바에서 이주한 사람이며, 어머니는 뉴멕시코 토박이다. 이런 작가의 상황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섯 명의 대학 동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공통분모로 굳게 맺어진 그녀들은 졸업 후에도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고, 변함없는 우정을 나눈다.□

## ■ 엔리케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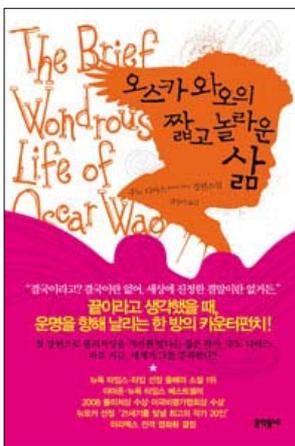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Yes 24

원제: Enrique's Journey (2006)  
 소냐 나자리오 (지은이), 하정임 (옮긴이), 돈 바트레티 (사진)  
 출판사: 다룬  
 출간일: 2007-01-30  
 ISBN(13): 9788995574782  
 반양장본| 303쪽| 223\*152mm (A5신)

매년 미국에 있는 엄마들을 찾아 나서는 불법 이주 아동의 삶을 기록한 논픽션. 엄마

를 찾기 위해 122일간 약 5만 리의 길을 떠난 온두라스 소년, 엔리케의 여정을 미국의 소냐 나자리오(Sonia Nazario) 기자가 취재한 기획 기사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 ■ 오스카 와오의 짧고 놀라운 삶



이미지 출처: 알라딘

원제: The Brief Wonderful Life of Oscar Wao (2007)

주노 디아스 (지은이), 권상미 (옮긴이)

출판사: 문학동네

출간일: 2009-01-12

ISBN(13): 9788954607117

반양장본 | 428쪽 | 210\*140mm

이 작품은 카리브 해의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1968년 태어나 1974년 미국 뉴저지로 이민 간 작가 주노 디아스(Junot Diaz)의 경험이 반영된 소설이다. 도미니카공화국계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난 오스카와 그의 누나 롤라, 어머니 벨리시아와 할아버지 아벨라르 등 삼대에 걸친 데 레온 가족의 이야기이다. 31년 동안 독재자 트루히요의 철권통치하에서 숨죽이던 조국 도미니카공화국의 이야기이자 자신의 삶을 힘겹게 살아낸 개인들의 생존 기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국내에 영화 <도미니카의 붉은 장미>로 소개된 홀리아 알바레스(Julia Alvarez)의 소설 『나비들의 시대 In the Time of the Butterflies』(1994)와 더불어 20세기 도미니카공화국의 어두운 이면을 조망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